

..... 최근 들어 북한·연변간 변경무역은 과거의 단순한 식품·알곡 위주에서 벗어나 지금은 경공업·생필품·목재 및 목제품·방직품·농산물·물·채소·약재 및 의료제품·금속자재·수산물 등 약 100여가지로 다양화 되었다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14**

북·중 변경무역과 북한의 시장실태



OPEN

집필 : 박명서(정치학박사, 경기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장)

통일교육원은 지난 2003년부터 통일·북한문제와 관련된 쟁점이나 다양한 소재를 인터넷에서 공모하여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를 시리즈로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시리즈의 14번째로 발간되는 이 소책자를 통해 북한과 중국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변경무역 및 북한내 일부 지역에서 개설·운영되고 있는 **‘시장’**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I. 서 론

II. 북·중 변경무역

1. 북·중 무역
2. 변경무역
 - 가. 북·중 변경무역의 발달
 - 나. 변경무역 현황
3. 보따리무역
 - 가. 조선족 보따리장사
 - 나. 북한의 보따리무역
4. 자유시장과 국경무역구
5. 밀무역

III. 북한의 시장

1. 북한시장의 발달
2. 농민시장(장마당)
 - 가. 농민시장의 형성과정
 - 나. 장마당에서의 거래
3. 암시장
 - 가. 암시장의 형성
 - 나. 암시장의 실상
4. 종합시장
 - 가. 종합시장의 도입
 - 나. 시장의 운영과 기능

IV. 결 론

→ 깊이 보기

- 5 깊이보기 ① : 도이모이(Doi Moi)
- 12 깊이보기 ② : 변경무역
- 32 깊이보기 ③ : 중국 조선족
- 50 깊이보기 ④ : 텃밭과 부업밭이란?
- 50 깊이보기 ⑤ : 뺨기밭이란?
- 55 깊이보기 ⑥ : 8·3 인민소비품창조운동
- 68 깊이보기 ⑦ : 고난의 행군

→ 표 · 그림

- 9 < 표 1 > 북한의 주요 국가별 교역 실적
- 10 < 표 2 > 북한의 대중국 수입상품
- 11 < 표 3 > 북한의 대중국 수출상품
- 17 < 표 4 > 교역방식별 북한·중국 무역현황
- 18 < 표 5 > 변경무역을 통한 북한의 대중국 교역상품
- 21 < 표 6 > 단동을 경유한 대북한 무역현황(1998~1999, 2005)
- 23 < 표 7 > 교역방식별 북한·단동 무역현황(2005)
- 25 < 표 8 > 연변의 대북한 변경무역 수출입통계
- 26 < 표 9 > '90년대 연변을 통한 변경무역의 주요 수입상품
- 26 < 표 10 > '90년대 연변을 통한 변경무역의 주요 수출상품
- 9 < 그림 * > 북한의 대중 무역 추이

I. 서론



I [서론]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체제전환 초기에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시장경제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였다. 중국의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과 사회주의 시장경제론 그리고 베트남의 도이모이(Doi Moi) 정책 등이 좋은 예들이다.

북한 역시 계획경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시장경제적 기능을 일부 도입·활용하겠다는 의지속에서 실리사회주의 노선을 제시하고 있다.¹⁾

1) 심의섭 (2006) 131-132쪽.

깊이보기 ① : 도이모이(Doi Moi)

베트남은 1986년 12월 제6차 공산당전당대회에서 '구엔 반 린' 이 서기장에 취임한 뒤, 전시형 외국의존경제에서 탈피하여 자조자립의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베트남식 개혁개방정책인 '도이 모이(Doi Moi)' 정책을 채택하였다.

'도이모이'는 '쇄신(刷新)'을 뜻하는 베트남어로 사회주의의 기초 골격은 유지하면서 자본주의를 접목시키려는 정책으로 베트남판 페레스트로이카로 불린다.

1인당 국민소득이 불과 100~200달러에 불과하던 베트남은 도이 모이 정책 이후 수년 사이에 아시아 최대 쌀 수출국으로 부상했으며, 매년 7~8%의 경제성장률을 과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일본·대만 등의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소비재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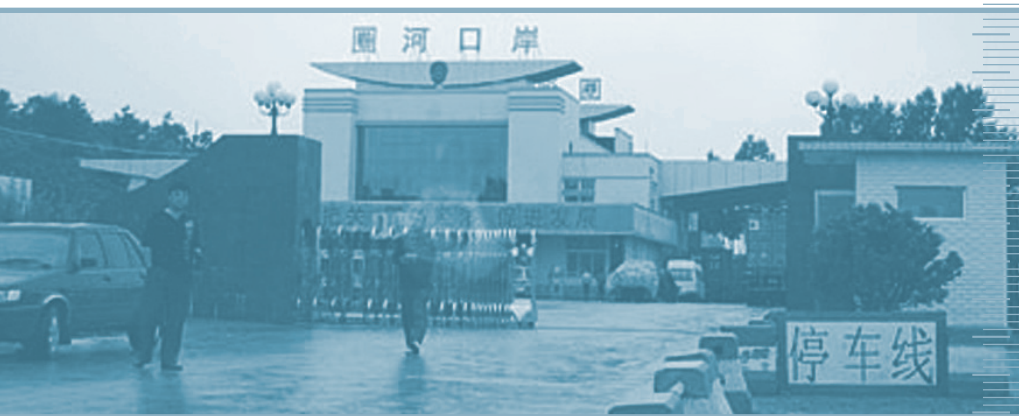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장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배경은 계획경제에 비공식부문으로 잠재해오던 시장을 양성화시키고 육성시킨 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북한도 1990년대의 경제난 이후 생산부문과 유통부문 모두에서 계획체제가 상당부분 해체되고 시장요소가 확산되었는데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이하 7·1 조치)'를 계기로 이를 양성화하게 된 것이다.

북한은 2002년 임금과 물가를 현실화하고 기업의 경영자율권과 독립채산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시장경제적 성격의 '7·1 조치'를 내놓았다. 이 조치 이후 개인들의 농산물 교류에 그쳤던 농민시장은 기업과 개인 모두가 참여하는 소비재 유통 종합시장으로 확대되는 등 시장요소를 도입하는 부분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돈맛'을 본 기업과 주민들 사이에서는 배급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빈부 격차 등과 같은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북·미 갈등에 따른 열악한 외부 환경과 체제유지를 앞세우는 북한 지도부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경제개혁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 소책자에서는 북한 개혁·개방의 현주소와 함께 시장경제의 진전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북한보다 개방에 나선 중국과의 변경무역이 북한의 시장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그리고 북한의 시장(암시장) 발달과정과 현황 등의 분석을 통해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장경제원리의 부분적 도입실태를 알아본 후 '7·1 조치' 및 시장화 진전의 정도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II. 북·중 변경무역



1 [북·중 무역]

북한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이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소원해진 북·중 관계는 2001년 김정일 위원장과 장쩌민 주석의 상호 방문을 통해 개선되기 시작했으며, 경제관계는 신속하게 확대되었다.

북·중 교역규모는 '99년 3.7억 달러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01년부터 7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03년에는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북·중 무역은 2005년 15억 8000만 달러 수준으로 이미 북한 전체 무역량의 절반을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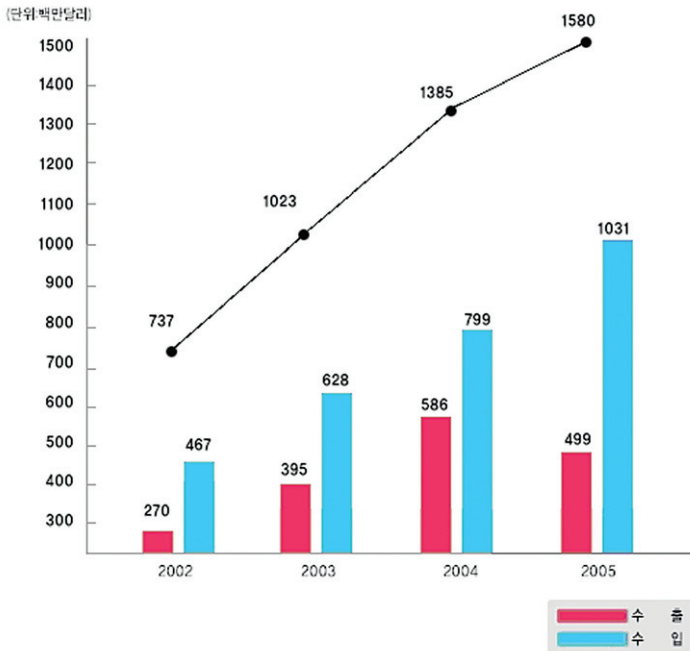
북·중 교역의 절대량은 2003년 1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지속되어 왔으며, 2006년에 들어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 표 1 〉 북한의 주요 국가별 교역 실적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중국	738	27.6	738	25.4	1,023	32.8	1,385	39	1,580	39
한국	4	15.1	641	22.1	724	23.2	697	19.6	1,056	26
일본	475	17.8	370	12.7	266	8.5	253	7.1	194	4.77
러시아	68	2.6	81	2.8	118	3.8	213	6	-	-
태국	130	4.9	217	7.5	254	8.2	330	9.3	338	8.34
인도	158	5.9	191	6.6	158	5.1	135	3.8	-	-
기타	702	25	664	23	572	18	541	15	-	-
총계	2,674	100	2,901	100	3,115	100	3,554	100	-	100

주: 남북교역을 포함.

자료: KITA, KOTRA



〈 그림 * 〉 북한의 대중 무역 추이

〈그림 *〉의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을 보면 2004년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05년엔 감소하였다. 그러나 수입액이 36.5%(10억 3100만 달러)증대되어 전체교역량은 12.9%(15억 8천 000만 달러) 증가되었다. 이처럼 북한의 대중교역에서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늘어나고 있어 무역적자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²⁾

북·중국간 무역구조를 살펴보면, 북한의 주요 수입품은 체제유지에 필요한 원유와 농산물 및 가공 수출을 위한 방직원료와 방직품 등이고, 수산물과 광산물 등 1차 상품 위주로 구성된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어패류가 2005

〈 표 2 〉 북한의 대중국 수입상품

(단위: 천 달러)

품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광물성 연료	161,800	117,969	180,727	204,657	285,711
육류	6,701	10,372	63,623	140,576	104,221
전기제품	23,410	27,482	39,581	46,051	56,578
기계류	23,319	26,439	27,044	39,924	77,052
철강	22,133	20,781	20,688	39,715	35,070
플라스틱	23,312	25,133	24,578	32,434	52,158
인조필라멘트	6,131	9,723	14,590	18,324	28,896
곡물	62,611	29,910	49,961	15,369	50,291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2) 한국무역협회에 의하면 2006년 1~4월의 북한의 대중적자규모가 전년 동기 1억 6천 420만 달러에서 2억 750만 달러로 확대되어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년에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 북한의 제1의 수출품목인 어패류의 수출이 감소된 것은 연체동물(오징어, 조개)의 수출단가가 절반수준으로 하락하고, 기타 어류(명태, 갈치)의 경우 수출물량이 줄어 어패류 전체의 수출이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5년의 대중수입에서는 곡물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으로 봄·여름 수입을 늘린 것도 있지만, 중국의 곡물가가 하락하면서 인도 등 타국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을 중국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최근에 발생한 북핵사태로 인해 대외원조가 중단위기에 있는 북한으로서는 곡물수입의 비중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 표 3 〉 북한의 대중국 수출상품

(단위: 천 달러)

품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어패류	47,977	143,016	206,931	261,806	92,396
철강	23,670	27,860	46,796	75,925	72,157
금속광물	6,434	8,537	14,958	60,114	92,327
광물성 연료	4,318	11,295	17,250	53,100	112,195
비편물제의류	26,773	38,261	52,237	50,850	58,308
목재	168	354	13,523	34,604	11,417
나무	4,640	9,303	13,615	15,175	14,809
종자, 인삼	22,490	10,025	7,791	6,761	6,931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2 [변경무역]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교역은 일반적으로 일반무역, 무상지원 그리고 변경무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변경무역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이루어지는 특수한 형태의 교역이다.

깊이보기 ② : 변경무역

변경무역은 중국 정부가 자국의 변경지역들이 인접국가들과의 원활한 경제교류를 통해 경제적 발전을 이룰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하여 제시한 무역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변경지역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들 지역과 인접국 간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 수입 관세, 기타 수입관련세 상의 감면 혜택을 받으며, 이러한 정책상 혜택을 받고 이루어지는 거래를 변경무역이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정무원에서는 길림성 연변지역 조선족들의 해산물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연변과 북한의 변경무역을 비준하고 중국식품공사 연변분공사와 조선무역회사는 물자교환동서를 1954년 10월 19일 정식 체결하였다. 합동서에는 북·중 변경무역은 바터무역이며 교환물자의 가격은 인민폐를 단위로 하고 교환지점은 연변의 도문·사타자·개산툰·북한의 남양·회령·경원·무산으로 하였다.

중국의 문화대혁명 직전인 1966년까지 변경무역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문화대혁명기간에도 개별무역은 존재하기도 하였으나 (1966~1970) 한때 북한·연변 변경무역은 완전히 중단(1971~1981)되었다가 1982년에 다시 시작되었다.

중국 정부는 교통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산재나 소비재의 원활한 공급과 상호보완적인 상품의 교역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유도하고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북한과의 변경무역을 적극 장려했다.

중국 정부는 변경무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4년 변경소액무역 잠행관리판법(邊境小額貿易暫行管理辦法)을 제정하고, 뒤 이어 이를 보완하는 일련의 법규들을³⁾ 발표하면서 변경무역과 관련한 제도

3) 1996년 국무원관어변경무역유관문제통지(國務院關於邊境貿易有關問題的通知)와 1998년 관어진일보발전변경무역적보충규정적통지(關於進一步發展邊境貿易的補充規定的通知).

를 정비하기에 이르렀다. 이 범규에 이하면 변경무역은 변민호시무역(邊民互市貿易)과 변경소액무역(邊境小額貿易)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⁴⁾

변민호시무역⁵⁾은 변경지역 주민이 국경선 20km 이내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개설된 개방지역 또는 지정된 시장에서 행하는 물물교환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거래 상품은 생활용품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일인당 일일 3,000위안(한화 약 45만 원) 한도 내에서 수입 관세와 증치세(일종의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변경소액무역은 일정한 변경지역에서 변경소액무역권한⁶⁾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지정된 변경세관을 통해 인접한 나라의 변경지역 기



▲ 중국 단둥에서 북한으로 통하는 국경 세관지역을 민간 무역상들이 탄 버스가 통과하는 장면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뉴스레터(1999. 8).

5) 변민호시무역은 물물교환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중국 해관의 통계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통계상의 변경무역은 바로 변경소액무역만을 말한다.

업 또는 무역기구와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 해관법에서 정한 특정상품(담배, 화장품, 주류 등)들을 제외한 전 거래상품에 대해 수입관세 및 증치세가 50% 감면된다. 그러나 단지 원산지가 해당국인 제품들에 한해 그런 혜택이 주어지며 제3국산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변경무역에 있어서 교역물품의 통관은 통상구(通商口)로 불리어 지는 소규모 세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연변지역에는 8개의 통상구가 있는데, 그 중 7개가 두만강을 따라 북한과 마주하고 있으며, 압록강 유역에서는 단동과 집안이 대표적인 통상구이다.

가. 북·중 변경무역의 발달

북한과 중국간의 변경무역은 주로 요녕성의 단동과 길림성의 연변·통화·백산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 지역들은 지리적으로 압록강 및 두만강 유역과 접경을 이루고 있어 육로를 통한 교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북·중간 변경무역의 발달은 이러한 지리적·문화적 특수성 외에 북한의 대외무역환경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

6) 변경소액무역권을 가진 업체들만이 관세 및 증치세 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OTRA 대련 무역관에 따르면, 단동시에 130여 개 업체, 연변 지역에는 100여 개, 훈춘 지역에 약 15개 업체가 변경소액무역권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2004년 10월 기준).

통적 우방인 러시아, 중국과의 원조성 교역이 붕괴되고 무역관계에서도 경화결제의 어려움을 겪는 북한으로서는 국가간 협정무역의 보조수단을 강구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경화결제의 어려움 없이 양국간의 경제적 이점을 유지할 수 있는 교역형태로 변경무역의 활성화가 강조되었다. 무엇보다도 '80년대 이후 경공업 소비재나 생필품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으로서는 생필품 조달원으로서 북·중간의 변경무역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⁷⁾

이 밖에도 경제적 상호 보완성이라는 측면과 양측 상품 및 가격 특성도 변경무역 확대에 직접적 요인이 되었다. 중국 측에서 보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질 낮은 소비재나 공산품들을 거래할 수 있어서 좋았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부족물자의 충당을 위해서 품질과는 상관없이 가격이 저렴한 물건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러한 양자간 이해의 일치로 북·중국간 변경무역이 확대되는 중요한 경제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⁸⁾

해방 이후 줄곧 중공업 우선정책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공업이 취약했던 북한으로서는 변경무역을 통해 주로 곡물류·식용유·통조림·섬유·의류·비누·담배·설탕·재봉틀·선봉기·TV·세탁기·냉장고 등과 같은 생활 필수품들을 수입하

7) 이찬도(2000), 250쪽.

8) Ibid.

고 수산물이나 목재·시멘트 그리고 철강·석탄·은·마그네슘과 같은 광산물 등을 수출해 왔다.

나. 변경무역 현황

북·중 변경무역은 중국의 문화혁명으로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1982년 재개되어 1990년대 들어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총 교역에서 변경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5년에는 2.9%에 불과하였으나 1996년에는 21.1%, 1997년에는 33.2%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북한의 대중국무역 가운데 변경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 표 4 〉 교역방식별 북한·중국 무역현황

(단위: 천 달러)

연도 방식	2003			2004			2005		
	수출	수입	무역액	수출	수입	무역액	수출	수입	무역액
일반 무역	20,880	431,258	452,138	75,000	566,229	641,229	147,942	678,527	826,469
가공 무역	10,334	45,080	55,414	21,684	35,166	56,850	20,939	51,634	72,573
변경 무역	81,319	114,649	195,968	156,365	143,675	300,040	181,855	259,501	441,356
보세 무역	278,268	20,445	298,713	321,182	20,844	342,026	145,445	34,451	179,896
무상 원조	-	10,889	10,889	27	14,556	14,583	-	38,124	38,124
기 타	4,745	5,674	10,419	7,935	14,055	21,990	2,976	18,947	21,923
합 계	395,546	627,995	1,023,541	582,193	794,525	1,376,718	499,157	1,081,184	1,580,341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중국해관무역통계.

2000년대에 들어서도 이 같은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변경무역의 경우 중국정부가 일반무역에 비해 세제상의 우대조치(관세, 증치세 각 50% 감면)⁹⁾를 취하고 있어 북한의 제1수출방식이 되고 있다. 그 결과 단둥·도문·훈춘 등 중국 국경도시에서 이뤄지는 변경무역이 전년에 비해 47.1%가 늘어난 4억 4,137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북한과 중국간 기업·민간교역이 활발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국의 업체가 북한으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하고 제품을 공급하거나 북한 업체에게 원자재 등을 공급하고 임가공료 지급 후 제품을 가져오는 형태인 가공무역도 꾸준히

〈 표 5 〉 변경무역을 통한 북한의 대중국 교역상품

(단위: 천 달러)

구분	품 목	2001 상	2001 하	2002 상	2002 하	2003 상
수 출	철광	9,171	10,744	11,026	12,986	15,816
	목재	2,028	2,311	3,849	5,175	4,935
	광석류	2,170	3,105	1,675	3,377	3,574
	광물성 연료	1,684	1,136	1,884	2,845	3,064
	수산물	366	1,061	585	5,331	1,487
	직물, 의류	822	543	290	914	1,428
수 입	곡물	2,953	4,898	6,176	14,573	12,153
	광물성 연료	9,430	7,879	8,113	6,807	9,548
	전기 제품	4,852	3,319	3,361	4,223	3,331
	기계류	3,575	3,800	3,055	3,029	2,471
	일반 차량	669	528	274	1,052	569
	채유용 중차	1,039	2,112	767	356	721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중국해관무역통계.

9) 중국의 무역상이 변경무역을 통해 북한산 물품을 구입하면 관세(평균 9.9%), 증치세(17%)를 각각 절반 수준으로 낮추게 돼 산술적으로 13.5% 정도의 원가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증가하고 있다.

반면, 북한·중국산 물품이 제3국으로 수출되기 앞서 일시적으로 중국·북한 보세구역으로 수출입되는 보세무역은 대중국 수출 실적이 1억 4,545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54.7%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보세무역의 감소현상은 주로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되는 양이 많은데, 한국의 원산지규정 강화나 일본의 대북제제로 한국이나 일본으로의 수출이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그리고 보세무역의 주 내용 중의 하나인 어패류 가격하락도 보세무역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수입은 전반적으로 증대되는 가운데 북·중 교역량 점유율이 높아져 구조화되는 추세이다.

변경무역에 있어서 북한의 대중국 수출품으로 철강·목재·광물 자원·수산물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수입에서는 곡물·에너지·전기제품 등이 두드러진다. <표 5>에 따르면 매년 철강 제품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목재 또한 2002년 하반기에 최고치에 도달했으며 2003년 상반기에는 전년 상반기에 비해 28%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그 밖에도 광물자원의 수출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경무역을 통한 대중국 수입에 있어서는 광물성 연료(주로 원유)가 두드러진다. 2003년 상반기 기준 곡물류 수입은 전년 상반기 대비 거의 두 배 증가했다. 특히 2001년 상반기 이래로 곡물 수입

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북한 내부의 식량사정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북·중국간 변경무역은 주로 압록강과 두만강에 접해 있는 단동·연변·통화 등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신의주의 맞은편에 위치한 요녕성 단동시는 중국의 대북교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요녕성에는 대북한 통상구가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동시가 철로와 수로를 겸비한 가장 중요한 통상구이다.

단동은 현재 중국 최대 대북한 상품교역 집산지로 무려 500여개 회사들이 전문적으로 대북한 무역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들 중 125개 회사가 변경소액무역권을 가지고 있고, 6개의 대형국영무역기업¹⁰⁾과 40여개의 대형국영기업¹¹⁾과 외자기업¹²⁾이 있다(2002년 기



▲ 북한과 중국의 육상 교역통로(훈춘 취안허 세관). 무산철광 합작개발사업은 현재 중국의 최대 대북 투자 프로젝트이다.

〈 표 6 〉 단동을 경유한 대북한 무역(1998~1999, 2005)

(단위: 백만 달러, %)

	1998			1999			2005		
	수출	수입	총계	수출	수입	총계	수출	수입	총계
북중무역	356	57	413	328	42	370	1,081	499	1,580
단동경유	208	25	233	170	17	187	640	190	840
비율	58.5	43.5	56.4	51.9	40.4	50.6	59.2	38.0	53.1
변경무역	93	38	131	75	32	107	N.A.	N.A.	N.A.
단동경유	59	16	75	43	13	56	160	50	210
비율	63.0	43.3	57.3	57.3	40.6	52.3	N.A.	N.A.	N.A.
변경무역 비율									
전지역	26.1	65.7	31.6	N.A.	N.A.	N.A.	N.A.	N.A.	N.A.
단동	28.1	65.4	32.2	25.3	76.1	76.1	N.A.	N.A.	N.A.

자료: KOTRA

준). 대북 무역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만도 약 1만명에 달하며, 5만 명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¹³⁾

1996년 이후 북한과 단동의 교역액은 매년 15% 정도 증가하였다. 1999년 중국 세관통계에 따르면 단동시를 경유하여 이루어지는 수출입이 전체 북한·중국간 교역의 50.6%(수출 51.9%, 수입 40.4%)나 된다. 더욱이 대북한 변경무역액 가운데 57.3%(수출 43.3%, 수입 63.0%)가 단동을 경유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전년도에 비하면 조금 떨어진 수치이긴 하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0) 국가가 지정한 전문무역회사.
 11) 변경무역권을 인정받은 제조업체.
 12) 자유무역권이 있어 변경무역에도 참여.
 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경제: <http://www.globalwindow.org>.

2001년 이후 단동의 대북한 무역액은 2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05년도 교역액은 8.4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7% 증가했으며, 그 중 단동의 대북한 수입액은 1.9억 달러로 24% 감소했으며, 수출액은 6.4억 달러로 48.8% 증가했다.

단동은 중국의 대북한 변경무역의 중심지로 전체 대북한 변경무역액의 80~90%를 차지하고 있는데, 단동이 다른 어느 변경도시 또는 지역보다도 북한과의 변경무역 중심지로 성장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¹⁴⁾

첫째는 지리적 조건이다. 중국-북한 사이에 변경무역이 가능한 도시로는 단동·훈춘·도문 3개 도시가 있지만, 훈춘·도문은 중



▲ 단동해관으로 가는 북한 번호판을 단 트럭들이 줄지어 입구를 빠져 나오고 있는 모습

14) 박승헌(2000), 6-7쪽.

〈 표 7 〉 교역방식별 북한·단동 무역현황(2005)

(단위: 억 달러, %)

구 분	금 액	비 중
일반무역	4.3	52.4
변경무역	2.1	26.5
보세무역	1.3	15.9
가공무역	0.1534	1.9
기 타	0.5466	6.5
총 액	8.4	100.0

자료: KOTRA.

국 내에서도 교통이 불편한 지방이고 또 맞은편에 위치한 북한도시들의 경제가 낙후되어 있다. 반면에 단동은 평양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맞은편에는 북한 내 경제력이 4~5위이고 철도, 도로교통이 비교적 발달한 신의주가 자리하고 있다.

둘째는 변경무역을 위한 단동의 노력이다. 요녕성에서는 변경무역에 유리한 일련의 우대정책 등을 통해 대외무역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입 수속도 간소화하였다. 1988년 이전까지 북한과 변경무역을 하는 회사는 요녕성변경공사 하나였었지만 2002년에는 변경무역권을 가진 회사가 125여개에 이르며 북한과 거래하는 기타 제조업을 포함하여 총 160여개 회사가 변경무역에 종사하고 있다.¹⁵⁾ 또한 단동은 변경무역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북한과의 변경무역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무역방식도 과거의 단순한

1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경제: <http://www.globalwindow.org>.

바터제에서 벗어나 신용장을 통한 일반무역·중계무역·합작투자 등으로 다양화 시키고 있다.¹⁶⁾

2005년 북한과 단동 사이의 변경무역 교역액은 2.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년도 대비 90.9% 증가율과 함께 단동의 변경무역은 무역방식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북한의 대단동 수출은 5,765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 13.9% 증가했으며, 수입은 1.6억 달러로서 전년에 비해 무려 164%나 증가했다.

2005년도 북한과 단동지역간 변경무역의 특징을 살펴 보면, 단동으로 유입된 상품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자원성 품목의 비중이 컸다. 기초 광산품이 1,412만 달러로서 전년 대비 19.7% 증가했으며, 무연탄이 765만 달러로서 4.9% 증가했다. 일반금속 및 그 제품은 2,778만 달러로서 4.9% 증가했다. 특히 한약재와 흑연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한약재는 165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0% 증가했으며, 흑연은 80만 달러로 780% 증가했다.

북한으로 수입된 상품으로는 전자기계제품과 농산품의 비중이 컸는데, 전자기계제품은 3,830만 달러로서 전년도 대비 191% 증가했으며, 북한의 대단동 변경무역 수입총액(1.6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였다. 농산품은 4,005만 달러로서 88.8% 증가했으

16) 박승현(2000), 6-7쪽.

〈 표 8 〉 연변의 대북한 변경무역 수출입통계

(단위: 만 달러)

년 도	수출입총액	수 출	수 입	무역흑자
1991	7,454	3,786	3,668	118
1992	14,529	6,189	8,394	-2,196
1993	32,732	14,468	16,264	-1,796
1994	22,588	11,371	11,217	154
1995	5,423	3,035	2,388	647
1996	2,218	1,384	838	550
1997	3,535	2,434	1,101	1,333
1998	3,163	2,212	951	1,261
1999	5,072	4,090	982	3,008
2000	4,982	4,044	848	3,196
2001	6,833	5,022	1,811	3,211
2002	9,459	6,579	2,880	3,699

자료: 연변주 대외무역합작국 통계자료, 강승호·최병현(2004)중국 동북3성 진흥계획과 인천의 대응, p. 28. 재인용.

며, 변경무역 수입총액의 25.1%를 차지했다.¹⁷⁾

단동지역과 북한간 변경무역을 포함한 전체교역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과거 물자교환방식의 결제 중심에서 현금결제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임가공무역 및 대리무역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단동에서 수입한 북한상품은 대부분 현지에서 판매되거나 한국으로 재수출됐으나, 대리무역 등을 통해 홍콩이나 유럽과 같은 제3국으로의 수출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경제: <http://www.globalwindow.org>.

〈 표 9 〉 '90년대 연변을 통한 변경무역의 주요 수입상품

(단위: 만 달러)

구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수출총액	3,786	6,198	14,468	11,371	3,035	1,284	2,434	2,212	4,090
옥수수	360	2,094	4,449	1,756	39		163	86	220
콩기름		156	348	87	27	18	7	40	24
낙화생		348	435	582	4				
냉동돼지고기	191	392	325	407	4	7			
냉동소고기	34	128	70	35	21	3			
통조림	1,631	527	137						
사탕가루	4	142	275	147	127	10	14		20
담배	72	152	45	14	2	187	36	169	63
섬유원단	14	312	122	388	209	80			
비닐론원단	41	253	66	368	124	48		11	
밀가루					140	771	527	404	238
석탄				1,149	618	31	34	28	92
정유				319		61	105	132	247
입쌀							755	703	840

자료: 연변주 대외무역합작국 통계자료, 박승현(2001)에서 재인용.

〈 표 10 〉 '90년대 연변을 통한 변경무역의 주요 수출상품

(단위: 만 달러)

구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수입총액	3,668	8,394	16,264	11,217	2,388	834	1101	951	982
자동차	186	341	5,335	5,588	97		54	50	
강철	1,034	356	8,242	3,280	683	62	334	39	280
폐철		27	19	192	95		187	59	
해산물	283	62	789	659	634	257	81	169	90
화학비료	149		382	2	12	74	24		190
목재	443		419	332	89	217	193	217	240

자료: 연변주 대외무역합작국 통계자료, 박승현(2001)에서 재인용.

1954년 10월 중국 대외무역부가 연변 조선족들에게 원활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연변과 북한간의 변경무역을 승인함으로써 북·중국간 변경무역은 최초 연변과 북한 함경북도, 양강도 지역간에 이루어졌다.

'60년대에는 연변·북한간의 변경무역을 통해 주로 의류·염색원료·종이 등 경공업제품들이 북한으로 유입되었고 수산물과 과일이 연변으로 반출되었다.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1971년부터 10년간 중단되었다가 1982년 북·중국간 교역이 다시 재개된 후 연변과 북한의 변경무역 교역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는데, 1982년에 불과 54만 달러이던 것이 1989년에는 5,208만 달러로 거의 열 배 이상 증가했다.

상품구조를 보면 냉장돼지고기·설탕·음료·술 등 식품류와 운동복·신발·모자·인조모피 등 경공업 제품 및 사진기·전화기·녹음기·자전거·흑백TV 등 전자제품과 소량의 기계제품들이 북한으로 수입되었고 북한의 대연변 수출상품으로는 주로 수산물이 큰 비중을 차지 하였다. '80년대 말부터 연변의 건설수요로 인하여 북한의 시멘트·철강재료·건축자재 수출이 점차 증가하였다.¹⁸⁾

18) 박승현(2001), 2쪽.

1992년 11월 중국정부에서 《변경무역관리완화》 조치를 발표한 후 여러 수입제한조치들이 폐지되어 무역이 더욱 활성화되고 1993년에는 전성기를 맞아 무역액이 3,2337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1995년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6년에는 2,218만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1993년보다 열 배 이상 감소되었다. '90년대 북한의 대연변 수입상품은 주로 옥수수·밀가루·입쌀 등의 농산품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90년대 이후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반영한다. 수출상품으로는 주로 철강·자동차·목재·수산물 등이 주로 거래되었다.¹⁹⁾

'90년대 말부터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한 북한·연변간의 변경무역은 2003년(1월~11월)에는 1억 392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24.9% 증가)의 무역액을 달성하였다. 2004년 상반기에만 북한·연변간 수출입총액은 9,254만 달러로 동기대비 86.31% 증가했으며, 이것은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전 교역액의 41%를 차지했다. 이는 2002년 '7.1 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가 다소 호전되면서 북한·연변간 변경무역이 늘어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들어 북한·연변간 변경무역은 과거의 단순한 식품·알곡 위주에서 벗어나 지금은 경공업·생필품·목재 및 목제품·방직

19) 박승헌(2001), 3쪽.

품·농부산물·채소·약재 및 의료제품·금속자재·수산물 등 약 100여가지로 다양화 됐다. 북한의 대연변 주요 수출품으로는 목재·강재·철판·강괴(슬래브)·무연탄·수산물·철광분 등이고, 쌀·옥수수·밀가루·콩·석탄·코크스·콩기름·전기기계류·담배·방직품·경공업품 등이 주로 수입된다.²⁰⁾

2004년 현재 연변조선족자치주 내에서 약 127개 기업이 수출입 경영권을, 약 66개 기업이 변경 소액무역 경영권을 갖고 무역에 종사하고 있으며, 해외공사 도급 및 노무협력에 관여하는 기업이 6개가 있다. 이들 중 약 40여개 업체가 북한의 나진·선봉개발구에 입주해 식료품공장·담배공장·의류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류공장에만 약 2,000여 명의 북한 주민이 일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업체들이 여러 분야에서 북한측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변자치주 경제무역위원회에 따르면 46개 북한기업 또는 사무소가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진출하여 대중무역을 추진하고 있다.²¹⁾

연변에는 8개 무역통상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 7개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도문은 연변에서 유일하게 북한의 철도와 맞닿은 세관으로 대형화물의 중요한 통로이며 여전히 북한·연변 변경무역의 제1의 세관이다. 연변을 경유한 대북한 변경무역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1994년까지는 연변

2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경제 <http://www.globalwindow.org>.

21) Ibid.

등 길림성이 전체의 약 60.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들어 단둥이 중국 최대 대북한 상품교역 집산지로 부상했다.

북한 정부도 처음에는 같은 민족이 많이 살고있는 연변지역을 선호하였지만 조선족에게 사기 당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았다 한다. 그 후 북한 정부가 “변경무역의 중심을 신의주로 하라”는 지침을 내림에 따라 변경무역과 관련된 북한 물자들이 대부분 신의주로 집중되고 있다.

3 [보따리 무역]

일반적으로 변경무역은 중국 지방정부 소속의 무역회사나 개인 회사와 북한의 중앙이나 지방의 무역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도 개인이나 개인회사 사이의 변경무역을 보따리무역이라 한다. 북·중 변경무역 가운데 70% 이상이 보따리무역이다.²²⁾

가. 조선족 보따리장사

보따리장사란 개인이 소규모 휴대품 형태로 소액의 국제무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신용장 없이 인적 거래를 통해 상호 거래하므로 일반적으로 수출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공식무역이 아닌 개인이 행하는 밀무역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22) 이찬도(2000), 258쪽.

깊이 보기 ③ : 중국 조선족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韓民族)을 일컫으며, 중국내 55개 소수민족의 하나이다. 약 200만(1990년 기준) 명의 조선족들이 지린성「吉林省(길림성)」, 랴오닝성「遼寧省(요녕성)」, 헤이룽장성「黑龍江省(흑룡강성)」 등 동베이「東北(동북)」 지구에 주로 거주하며 연변 조선족자치주가 있다.

일본강점기 일본의 학정(虐政)을 피하여 한국에서 이 곳으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주로 농업에 종사한다. 1982~1990년까지 인구증가율은 연 1.05%로 같은 기간 중국 소수민족 평균 인구성장률 3.88% 보다 훨씬 낮으며, 반면 교육수준은 선진국수준에 가깝다. 중국 전체의 대학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의 이수비율이 각각 14명, 79명, 233명에 비하여 조선족 1천명당의 비율은 각각 43명, 209명, 337명이다. 또한 중국 전체의 문맹률은 22%인데 반해 조선족 문맹률은 7%로 매우 낮다.

이와 같은 높은 학력수준 및 낮은 출산율 등은 다른 소수민족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근면성실한 민족성으로 중국내에서 비교적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다. 참고로 조선족(朝鮮族)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재중동포’로 지칭하자는 의견도 있다.

북·중국간의 변경무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중국 조선족(중국 동포)의 역할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들은 대부분 고향

을 북한의 함경북도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에 고향을 둔 조선족들에게는 북한 친척방문이 가능했었는데, 문화대혁명 기간에 정치적 이유로 말미암아 잠시 중단되었던 친척방문이 중국의 개방 이후 변경무역과 더불어 다시 재개되면서 친척방문과 함께 일명 조선장사(보따리장사)가 유행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친척집에서 암암리에 물건을 사고 팔고 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양·회령·무산 등 지방에서는 중국물품시장을 세워 장사를 합법화시켰고 양측 세관에서도 통과물품의 수량제한을 완화시켰다.

'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보따리장사는 '80년대 말에 이르러 최고점에 도달했으며 '90년대 초반 해도 해산·무산·회령 등 북한의 국경도시에는 화려한 옷차림의 조선족 장사꾼들이 장마당을 누볐으며, 연변지역은 두 집 건너 한집씩 북한과 장사하는 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한다. 북한으로부터 해삼·명태·오징어·약재·고급산나물·구리(동) 골동품 등을 가져 오고 싸구려 중국 물건들을 북한에 파는 장사였다.²³⁾

그러나 호황을 누렸던 북·중 보따리장사가 2000년대 초반에는 잠시 침체되기도 했었다. 북한 내 거래상품의 결핍과 더불어 중국

23) 박승현(2001), 10쪽.

물건을 살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의 구매력이 현저히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개인 장사꾼들을 뿌리뽑기 위한 북한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기 때문이다.²⁴⁾

북한은 해방 이후 줄곧 중공업 우선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경공업이 낙후된 상태에 있었고, 따라서 의복·신발·일용품 등과 같은 소비재 경공업제품들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다.

중국 조선족들의 보따리장사는 이런 북한의 생필품 부족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었다. 이러한 보따리장사는 조선족에게는 시장경제의식을 일깨워 주었으며, 북한의 주민에게는 상품경제의식을 불어넣어 주었다. 북한에서 큰 장사꾼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중국 조선족 친척들의 영향으로 장사길에 들어 섰다고 한다.

보따리장사와 함께 중국 조선족들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북한 친척돕기이다. 중국 조선족들은 장사길에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들어가 선물로 주었고 북한 친척들을 중국에 초청하여 경제적으로 도와주었다.

'90년대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에 부딪치자 중국 조선족들은 본격적으로 북한 친척돕기에 나섰으며, 도문 세관에는 북한으로 들어

24) 조선일보(2001.7.2).

가려는 사람들이 매일 적어도 수십 명은 되었다 한다. 북한으로 쌀·식품·의류 등 생활필수품뿐만 아니라 현금(중국화폐)까지 보내주었다. 중국 조선족들의 북한 친척돕기 역시 '90년대 후반 북한 식량난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²⁵⁾

첫째, 중국 조선족들은 북한과의 변경무역 및 대북투자 등을 함으로써 개혁·개방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변경무역과 상호 접촉을 통해 시장경제의식이 북한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수될 것이며, 그들도 이 과정에서 자연히 시장경제를 습득하게 될 것이다.

둘째, 중국의 개혁·개방과정에서 얻은 조선족들의 체험을 향후 북한의 경제회생과 개혁·개방에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국 조선족은 남북이 문화적 융합을 이룰 수 있는 문화전달자 역할을 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조선족은 중국 국민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한반도 남과 북을 드나들 수 있는 특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바로 이런 장점 때문에 중국 조선족은 남북간의 경제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 조선족들은 북한 주민

25) 박승헌(2001), 10-11쪽.

과의 접촉을 통해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해 소개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발전된 모습도 알려주고 있다.

나. 북한의 보따리무역

북한의 보따리무역은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생필품의 60~70%가 중국산이어서 북·중의 변경무역 실상을 잘 짐작케 한다.

북한에서 보따리장사와 개인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부류는 화교이다. 북한 화교들은 대부분 중국과의 연줄을 이용하여 장사를 하고 있으며, 이들은 북한 최대의 무역집단이 되었으며, 경제력 집중을 우려할 정도가 되었다. 북한 화교는 공식적으로 1년에 2번 중국방문이 허용되며 물건뿐만 아니라 달러장사에도 깊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는 북한주민이 중국에 나오기도 어렵고 물정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장사' 개념도 서툴러서 조선족 아주머니들이 대행해 준 적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의 보따리장사도 경험이 쌓여서 중국동포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다만 수적으로 적고 규모도 중국 측에 비해 작을 뿐이다.²⁶⁾

26) 조선일보(2001.5.26).

나진·선봉무역지대의 원정리 국제무역시장은 북·중간 변경무역의 중요 접점으로 역할을 했었다. 원정리시장은 매주 화·수·목 3일장으로 열렸으며, 주로 중국·러시아·북한 3개국 무역 종사자들이 거래를 했다. 거래 품목으로 중국의 경공업제품 및 식품·러시아 축산물·북한의 해산물들이 주로 물물교환 형태로 거래되었다.

단동은 중국에서 가장 큰 대북 육로 통상구로 북·중 양국 보따리상들이 선호하는 곳이다. 단동 세관 맞은 편에는 단동의 ‘평양장터’라 불리워지는 곳이 있는데, 이 곳에는 북한 보따리상을 대상으로 하는 60여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이들 점포 대부분은 귀국한 화교들에 의해 운영되며 일용품부터 중고TV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해 큰 이익을 남긴다. ‘평양장터’가 활기를 띠면서 주위 민박집·식당·점포 등 또한 큰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다.²⁷⁾

북한의 평양과 중국의 단동시를 오가는 버스가 최초로 운행에 들어간다고 중국 동포신문인 「흑룡강신문」이 2004년 1월 20일 보도했다. 이 국제노선의 버스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운행하는데, 매일 단동과 평양에서 동시 발차한다고 한다.

흑룡강신문은 “조선통담무역회사가 운영하는 이 버스노선에는 중국산 장거리 고급버스가 투입되는데, 버스 안에는 녹화TV, 가라오

27) 조선신보(2004.2.20).

케 기기까지 구비하고 무료 점심식사와 각종 물건판매 서비스도 하며 특별서비스로 손님들의 수화물을 양국 목적지까지 개별 운송해 준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조선통담무역회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 편도 버스요금이 200위안(중국돈, 미화 24.2 달러)이며 허용 수화물은 25kg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kg당 2위안을 추가로 받는다고 말했다. 이 버스의 발차시간은 오후 4시이며 소요시간은 신의주 통관시간을 고려한다면 5시간 가량 걸릴 것으로 신문은 예측했다.

흑룡강신문은 “이 국제노선 버스의 운행으로 평양, 신의주, 단둥의 무역일꾼들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민간교류와 경제교류에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국 보따리 장사꾼들이 대거 이 버스노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4 [자유시장과 국경무역구]

중국과 북한간 변경무역에서 새로운 형태를 띠는 것이 자유시장이다. 북한과 중국은 1997년 6월 2일 원정리에 약 3만 m²에 달하는 공동무역시장(공식명칭: 원정조중공동무역시장)을 설립하였다. 초기에 원정리시장은 매주 3일장으로 양측이 각각 50명 규모로 하였으나, 후에는 각각 150명으로 증가하였고 가장 많을 때에는 중국측 500명, 북한측 300명까지 증가하였다.

원정리시장에 갖고 들어가는 상품은 인민폐 3,000원 이하로 제한하였으며 교환은 면세 처리되었다. 원정리 시장에 들어오는 상인들은 주로 나진·선봉지역의 주민들과 훈춘시 시민들이었다. 북한 상인들이 가지고 오는 주요한 물품은 해산물과 토산품이었고 연변 상인들이 가지고 가는 주요한 물품은 의류·신발·일상생활용품

과 식량·부식품 등이었다.

원정리시장을 통하여 연변의 일용품과 식량이 대량으로 나진시장에 들어갔으므로 나진시장의 상품가격은 연변시장의 상품가격과 대체로 일치하였다. 원정리시장이 호황을 누릴 때에는 경기가 좋아 훈춘시에는 한 때 호시무역시장 장사까지도 나타났고 평균 일일 교역액은 40~60만 원(중국 인민폐)에 달하였다. 1997년 말 호시무역시장에 다녀온 다녀 온 중국측 변경주민은 8,400여명에 달하였고 무역액은 1,600여 만원(인민폐)에 달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으로 시장에 유통할 수 있는 상품이 점점 적어짐에 따라 시장에서 북한 상인들은 달러와 엔화를 주고 연변 상품들을 사들였다. 북한측에서는 달러와 엔화의 유출을 막기 위하여 시장에서 달러와 엔화의 유통을 엄금하였다. 북한측에서 시



▲ 함경북도 회령세관 앞에 있는 국경시장 전경

장에 들어오는 상품과 교환화폐에 대한 제한이 심해져 북한 상인들이 점차 줄어들게 되어 1999년 5월에 원정리시장은 자동 폐장되었다.

2001년 초 훈춘시는 나진·선봉지역 당국에 원정리 시장을 다시 개장할 것을 제의하였고 나진·선봉지역 당국도 이에 호응하였다고 한다.²⁸⁾

북한과 중국간에는 변경무역과 함께 밀무역 또한 적지 않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았다. 따라서 양국 정부는 자유시장의 개설을 통해 이를 양성화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자연스럽게 제공함으로써 중국에 유입되는 탈북 주민을 사전 차단하고 동시에 북한이 시장경제를 도입하도록 유인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자유시장을 개설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은 북한 내부상황 악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외국인 투자유치의 부진 등으로 나진·선봉지역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지부진하자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로 보인다.²⁹⁾

28) 황덕남(2000), 53-54쪽.

29) 이찬도(2000), 260-261쪽.

한편 북한과 중국은 변경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상품시장으로 「국경무역구(互市貿易區)」를 설립·운영하고 있는데, 국경무역구에는 무비자 및 면세 특혜라는 특별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미 길림성 훈춘 권하 - 함경북도 원정리 국경무역구, 길림성 용정 삼합 - 함경북도 회령 국경무역구, 길림성 장백현 - 북한 혜산 국경무역구가 설립되어 있으며 도문시와 함경북도는 2005년도에 새로 길림성 도문시 -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 국경무역구 건설에 합의했다.

또한 2006년 3월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는 훈춘 사타자 - 북한 류다도 국경무역구 건설을 북한에 제안하는 등 최근 북·중 국경지역에 교역공간 확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변경무역 활성화와 북한의 경제개방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³⁰⁾

3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경제: <http://www.globalwindow.org>.

5 [밀무역]

북·중국 변경지역에서는 공식무역과 함께 주민들 및 일부 북한 기관원들에 의한 밀무역 또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밀무역의 주요 품목들로 북한 쪽에서는 자동차·금·구리·인삼·약재·골동품 등이,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식량과 담배·술 등의 식료품이 주류를 이룬다.³¹⁾



▲ 밀수에 이용되는 목선들

31) 이찬도(2000), 261쪽.

밀수는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국경지대에서는 온갖 종류의 밀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에서 직접 물건을 구입하면 조선족이 북한에서 파는 가격보다 20~30%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대량으로 가지고 들여와 도매상에게 이윤을 붙여 넘긴다.

대규모 밀수가 대부분 뇌물을 주고 국경경비대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반면, 소규모 밀수는 압록강이나 두만강에서 중국 쪽 사람들과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며, 이 때에는 현금 거래뿐 아니라 물물교환도 이루어진다.³²⁾

신의주와 단동 부근의 국경지역은 밀무역이 성행하는 곳 중의 하나이다. 북한 쪽에서는 구리나 고철을, 단동에서는 담배와 일용품 등이 주로 교환되며 이 과정에서 남한 상품이 북쪽으로 암거래 되기도 한다.

가장 돈 벌이가 좋은 것은 자동차 거래다. 일본에서 중고차를 수입해 중국 국경을 통해 밀매업자에게 넘기는 일인데, 북한말로는 '되거리'라 한다. 이 자동차 되거리 사업은 워낙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개인 장사꾼들뿐만 아니라 북한의 무역상사들은 물론 힘있는 기관의 외화벌이 업소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한다. 북한에서는 해당기관의 묵인하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밀수이기 때문에 단속이 심하다고 한다.

32) 조선일보 NKchosun.com(2001.10.24).

Ⅲ. 북한의 시장



1 [북한시장의 발달]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는 시장경제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장이 존재할 수 없다. 북한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상업이라는 의미는 단지 정부가 주민을 상대로 행하는 일방적인 소재 공급사업일 뿐, 모든 상업유통은 국가의 계획과 통제 속에 중앙집권적으로 관리되었다.

단지 예외적으로 농민시장을 인정하고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적 경제활동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이는 농민들이 개인 부업으로 생산한 농·축산물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판매하는 장소로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영상업망을 보조하는 대단히 제한적인 역할을 했을 뿐이며 완전하게 국가통제로부터 자율성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³³⁾

그러나 계획경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농민시장은 점차 암시장화되어 갔다. 이전과 달리 허용되지 않는 품목들이 불법으로 유통되기 시작했고 시장도 사람이 운집하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열렸다.

동시에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 개인 장사에 나섬으로써 농민시장(암시장) 등을 통한 사적 경제활동 또한 활발해졌으며, 북한당국은 체제유지에 필요한 주민의 경제적 욕구를 최소한도로 채워주기 위한 전략으로 이러한 활동을 묵인해 왔었다.

무엇보다도 '90년대 중반 이후 심각한 경제난과 함께 공식적인 상품유통체계가 마비되면서 비공식적인 농민시장(암시장)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지금까지 금지되었던 곡물류나 변경무역 등을 통해 유입된 전자제품이나 경공업제품·생활품들이 공공연히 거래되기 시작했으며, 전문적인 장사꾼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주민들의 생활이 배급보다는 시장에 의존하게 될 만큼 이제 농민시장은 국영상업망의 단순한 보완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대체수단으로서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2003년 북한은 결국 농민시장을 확대·발전시킨 '종합시장'을 합법화 했다. 국영상업망이 붕괴되고 일반주민들이 식량과 생필품의 60~70%를 시장에서 자체 조달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시장기능의 인정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2 [농민시장 (장마당)]

북한에서 사적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에서 거래를 통하여 유통되며,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북한의 시장은 대체로 농민시장(장마당)과 암시장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장마당의 정식 명칭은 농민시장이다.

북한의 농민시장은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합법적인 ‘사회주의적 상업’의 한 형태이다. 북한은 농민시장을 “협동농장 농민들의 개인 부업 또는 공동 부업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일부를 농민들이 일정한 장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 파는 상업의 한 형태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농민시장이란 텃밭이나 부업밭, 땀기밭 등을 통해

생산되는 농축산물이나 부업을 통한 생산물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농촌의 장터이다.

깊이보기 ④ : 텃밭과 부업밭이란?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세대당 16~30평 규모의 개인밭 경작이 허용되는데, 이를 텃밭이라 하며 생산물은 농민시장 등에서의 임의 처분도 가능하다. 텃밭에는 원래 곡물의 자유경작으로 인한 국가배급제의 혼란을 우려해 채소 등 부식물을 심어서 자급하도록 했으나, 농민들은 식량난 해소를 위해 주로 옥수수·콩 등을 재배하고 있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협동농장의 생산량을 훨씬 상회하여 식량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식량 공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북한은 1987년경부터 기관·기업소 소속 노동자에 대해서도 1인당 50여평 규모의 부업밭 경작을 허용하였다. 직장 부업밭은 직장이 당국으로부터 배정받은 야산을 소속 노동자에게 각자 50여 평씩 개간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인데, 이를 위해 직장에서는 개인별로 연 2회 20일간의 영농시간을 배려하며 생산된 농산물의 전량 개인처분을 허용하였다.

깊이보기 ⑤ : 돼기밭이란?

텃밭과 부업밭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형태인 반면에 돼기밭은 비공식 경작형태이다. 돼기밭은 그 면적이 뽀 돼기만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개인이 산간오지·주거지 근처의 빈 공터·하천



▲ 땀기밭

주변의 공터 등을 밭으로 개간하여 개인적으로 경작하는 밭을 말하며, 일명 '소토지' 라고도 한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땀기밭 경작은 초기에는 단속의 대상이었으나, 식량난이 점차 심화되면서 공공연히 묵인되고 있다.

북한은 자본주의적 요소인 농민시장을 허용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회주의 초기에 아직 생산력 발전이 높지 못하여 일부 부식물들과 일용품들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농민시장은 자본주의적 잔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뒤떨어진 상업 형태이기는 하지만 농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노동자·사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생활향상에 이바지한다.

또한 김일성은 “국가적으로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물건을 넉넉히 생산·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고, 협동적 소유가 전 인민적 소유로 될 때만 농민 시장과 암거래는 완전히 공급제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농민시장을 사회주의가 완성되기 전의 과도기에서의 일시적 현상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의 예상과는 달리 농민시장은 농산물 및 각종 생필품 유통에 매우 큰 역할을 하였으며,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의식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가. 농민시장의 형성과정

장마당으로 불리는 북한 농민시장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외부



▲ 북한 장마당에서 물건을 파는 모습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들어 경제가 급격히 악화 되면서부터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 내에는 광복 직후부터 장마당이 존재해 왔고, 50여 년간 명칭과 운영 형태는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지만 북한 당국은 이를 폐쇄한 적이 없었다.

농민시장은 대체로 인민시장(1950년 이전) → 농촌시장(1950년) → 농민시장(1958) → 농민시장 상설화(1982) → 종합시장(2003)으로 변천해 왔다. 북한은 해방 후 재래식 시장을 '인민시장'으로 재편하였으며, 1950년 초에는 <내각결정 9호>에 의해 인민시장을 다시 '농촌시장'으로 개편하였다. 여유 농산물과 개인 상공업에서 생산한 물품이 거래되었으며, 1950년대 중반까지는 대부분의 생산물 가격이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러나 1953년 개인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운동이 시작되면서 국가당국이 가격결정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시장의 성격이 급격히 변화한 것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 개조가 끝나는 1958년부터였다. 당시 북한은 국가 주도의 상업체계를 확립했으며, 이에 따라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유통도 국가의 통제 하에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졌다.

1958년 8월 <내각결정 140호>에 의거해 '농촌시장'이 폐지되고, 대신 '농민시장'이 개설되었다. 이 농민시장은 종전의 농촌시장보다는 역할이 크게 축소된 것이었다. 종전에는 시장이 매일 열렸으

나 이때부터는 10일 단위로 열리게 되었으며 거래 품목도 개인부업으로 생산된 농·축산물의 일부로 한정됐다. 특히 농산물 가운데 식량이 금지된 사실은 주목할 만 하다. 같은 결정에 따라 개인 농업 경리, 개인 수공업 경리, 개인 상인 등이 모두 협동화 또는 국영화 되었으며, 대신 사회주의적 국영상점망이 설치됐다.

1950년대 말부터 70년대까지만 해도 경제성장과 저렴한 배급 정책으로 농민시장은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 농민시장 활성화를 위한 김일성의 지시로 상설 농민시장 개장이 붐을 이루면서 농민시장이 크게 활성화 되었다. 1984년 정무원은 농민시장 이외에 1개 군마다 1~2개소의 일일시장을 설치, 운영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농민시장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거래 품목도 다양해졌다.³⁴⁾

80년대 들어 북한에서 농민시장(암시장)이 확산된 계기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변경무역과 부업발 등의 허용은 농민시장의 거래규모를 급속히 확대시켰다. 국경지대의 각 도, 각 군이 “직접 인접 중국 연변지역과 자유무역을 하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1984년경부터 변경무역이 활성화되었다.

1984년 가내 부업을 장려하는 ‘8·3 인민소비품창조운동’을 계

34) 남성욱·문성민(2000), 160쪽.

기로 술이나 떡 등과 같은 간단한 식품의 생산과 의류 및 신발의 수선, 목수일 등과 같은 다양한 개인 부업활동이 증가하기 시작했다.³⁵⁾ 또한 1987년경부터 기관이나 기업소 소속 노동자들도 1인당 50여 평 규모의 부업밭을 경작할 수 있었다.

둘째, 1989년에 개최된 평양축전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이때 중국 등지로부터 상품들이 유입되었고, 축전 개최로 인한 경제위축으로 주민들의 생필품 조달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셋째, 시베리아 벌목장에서 귀국하는 노동자들을 통하여 유입되는 소비품이 주민들의 구매욕구를 자극한 측면도 있다. 넷째는 국가배급제의 붕괴와 생필품의 절대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배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면서 주민들은 생활필수품의 대부분을 농민시장에서 스스로 조달해야만 했으며 생존을 위해서 장사에 나서야만 했다.³⁶⁾

깊이보기 ⑥ : '8·3 인민소비품창조운동'

이 운동은 1984년 8월 3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경공업제품전시장을 시찰하던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각 공장·기업소·협동농장의 가내 작업반을 확대·개편한 생활필수품 생산 증대운동이다. 이 운동은 각 공장·기업소·협동농장에 조직된 가내 작업반을 확대 조

35) 남성욱·문성민(2000), 161쪽.

36) 심의섭(2006), 150쪽.

직하여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리려는 노력경쟁운동이다.

1980년대 도시주민 소비생활 수준의 현격한 저하는 이들이 자발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생계유지(보조)를 위한 불법적인 ‘부업’ 활동에 참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식량이나 기초 생필품 공급체계의 기능 저하는 생산영역에 대한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과 생산현장의 노동통제의 효율성을 부식시키고 궁극적으로 계획경제의 운용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도 이런 주민 소비영역의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따라서 이 운동은 이런 위기적 상황인식에서 나온 생필품 증산운동이다.

이 운동의 요체는 공장·기업소의 생활필수품직장(작업반)과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유희자재, 폐기물 또는 지방원료를 이용하여 경공업제품 생산을 늘리고, 또 도시와 노동지구의 유희 부양여성 노동력을 이용하여 공장·기업소와 연계된 가내생산협동조합, 가내 작업반, 부업반과 상업부문의 ‘리용생산반’에서 주민 소비생활과 직결된 식료품·의류 등의 가공생산을 늘리도록 한 데 있다.

북한 당국은 농민시장이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확대시키는 등 폐해가 크다고 판단하고 1987년과 1992년에 농민시장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매일장을 10일장으로 환원시키려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1989년과 1993년에 각각 이를 취소하고 다시 매일장으로 환원시켰다. 더 나아가 1988년과 1999년에는 국가 상업망을 통해 유통되어야 할 물품들이 대규모 장사꾼을 통해 사적으로 유통되는 일이 많아 이를 통제한다라는 명목 하에서 장마당 폐쇄를 꾀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마당을 통해 시장경제적인 요소가 확산되어 주민들이 시장경제체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이러한 사조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가 더 컸으며, 그나마도 주민들의 반발로 말미암아 북한 당국은 1999년 7월부터 쌀·조·수수 등의 곡물과 담배·채소류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했다.

즉 북한 당국의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농민시장은 국영 상업망이나 협동단체의 상업망을 보완하는 상품 유통체제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갔으며, 동시에 개설 취지와 달리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용품과 식료품 등 공업용품의 암거래 시장으로 변해갔다.³⁷⁾

농민시장은 지방인민위원회 소속 기구인 시장관리소가 7~8명의 관리원(주로 퇴역군인, 사회안전부요원, 퇴직한 당간부)을 두어 시장관리를 하는데 물건분량에 따라 하루에 북한돈으로 2원~15원의

37) 남성욱·문성민(2000), 162쪽

장세를 거두어 들인다. 장마당 거래가격은 ‘국정가격’ 과 달리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가격’ 이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국정가격보다 높은 편이다.

농민시장의 물가를 지역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북·중 접경지역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 지역평균을 100으로 볼 경우 접경지역은 97. 2, 함흥 98. 7, 평양 104. 2 순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한 시사주간지(AERA)는 2003년 3월 20일자에 함경북도 어느 농민시장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농민시장



▲ 발디딜 틈이 없이 북적이는 중구시장에서 판매되는 의류

“이곳의 농민시장은 폭 3m 규모의 통로에 대부분 노점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100여명 이상의 여성들이 쌀·옥수수·계란·야채·고추·마늘·사과·감자·계·생선 등을 판매하고 있다. 농민시장에서는 당국의 단속이 엄격한 옷감 등 금지품목은 단속에 걸려 압수당할 것을 우려해 품목과 가격을 적은 카탈로그나 샘플만을 들고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1999년에 탈북한 정○○씨는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에 있는 수남시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수남시장은 그 면적만도 약 1만평되는 부지를 차지하고 그 안에는 중국·일본·대만·동남아 등의 제품 및 한국산 제품 등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진열·유통·매매되고 있는 커다란 시장이며 서울의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을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원래 북한당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방불케 하는 이러한 시장을 환영하지 않았으며 시장이 번성하고 그것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안전부를 동원하여 농민시장에서 공산품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견잡을 수 없이 사회경제체제가 파손되어 가는 와중에서 시장확대가 불가피하게 초래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함흥시, 신의주시 등 대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의 군, 농촌에까지 새끼시장들이 부지기수로 생겨나 운영되고 있습니

다. 시장의 숫자 면에서뿐만 아니라 시장의 내용, 상품의 종류, 유통 매매의 형식 면에 있어서 금지품 및 단속물품, 주류(알코올)와 심지어 마약류까지 밀매되는 등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직장에 다니던 사람들이 공장이 멎고 식량배급이 끊어져 거기에 매여 있다가는 도저히 살길이 없게 되자 자동적으로 사직하거나 직장을 버리고 시장에 나와 앉아 하루 종일 장사를 하여 거기서 얻어지는 얼마 안 되는 이윤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 북한사회 전체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화로 되어 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 평양의 통일거리시장에서 주민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의 모습



▶ 평양 주민들이 '평양거리시장'에서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 평양시 낙랑구역에 있는 통일거리시장의 내부

나. 장마당에서의 거래

장마당에서의 거래상품은 원래 개인이 텃밭에서 생산한 채소류 등만 허용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사적 생산물, 국가 공식부문에서 절취·유출된 상품, 외국상품 등 제한 없이 거래되고 있다. 주거래 물품은 식량과 소금인데 옥수수과 쌀의 거래는 식량 배급이 중단되기 시작한 1995~1996년쯤부터 급격히 늘어났으며, 소금은 된장·간장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장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장마당에 필수적인 거래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잡화로는 세탁 비누가 가장 많은데 이는 대부분 중국산이나 개인 제조품이다. 신발, 성냥, 라이터, 담배 등도 많이 팔리는 품목들이었다.

장마당에서의 거래제품도 점점 더 다양해 졌다. 닭·잎담배·계란 등 농산물에서부터 옷·신발·술·김치·두부 등 공산품과 식품에 이르기까지 없는 것이 없을 정도이다. 특히 장날이면 제한된

장마당 구역 내는 밭 디딜 틈이 없고 자릿세도 고가로 거래된다. 이
 용자 수도 급속히 증가하였고, 도매상 거간꾼 등 전문적인 장사꾼
 까지 등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농민시장에서 옥수수·쌀 등 식량의
 약 60%, 생필품의 약 70%를 구입하고 있다.

북한의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비공식 경제부문 재화들은 주로 사
 적인 경제활동, 국경 밀무역, 중국 상인이나 조선족 동포들에 의한
 보따리장사를 통해 유입되거나, 외화벌이 일꾼들에 의해 유용된 물
 자나 공장·기업소에서 사취된 물자들이다.

암시장 거래형태는 이렇게 재화 및 서비스 거래형태로만 그치지
 않고 금융부문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채와 같은 사금융거
 래, 암시장을 통한 외환거래 등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사금융 거
 래는 주로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북송교포나 해외에 친척을 두
 고 있는 사람들과 화교상인, 전문적인 보따리 장사꾼이나 외화벌이
 일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외화도 거래 대상이다. 사적인 외화거래는 이미 '80년대부터 조
 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경제난으로 외화에 대한 수요가 늘
 어나자 크게 활발해 졌다. 북한 원화의 공식적인 환율은 1달러당
 2.16~2.61원이지만, 암시장에서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대체로
 1달러당 200원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

장사 행태를 보면, 쌀·밀가루·콩·옥수수 등 곡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본금이 넉넉해 애써 호객 행위를 하지 않는 편이나, 다른 품목의 장사꾼들은 집요하게 손님을 설득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장마당에는 TV·냉장고·오디오·자전거 등도 거래되는데 이러한 물품은 먼저 흥정하고 물품을 건네 주는 형식이다. 흥정이 이루어지면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을 데리고 예정된 곳에 가서 돈을 받고 물건을 건네준다.

한 언론사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남한 상품들이 북한 장마당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남한 상품은 주로 해마다 30여만 명이 북한을 찾는 중국 동포들의 보따리 속에 숨겨져 반입되고, 남한 제품을 팔다 북한 당국에 단속되면 물품이 압수되므로 몰래 장마당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접경지대 장마당에서 상표를 떼지 않은 남한 상품들이 거래되고 있는데, 특히 감기약·지사제·해열제 등과 같은 약품과 T셔츠 등 의류가 인기 품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암시장]

가. 암시장의 형성

사회주의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공식경제부문의 일반적 현상은 지하경제(암시장)이며, 북한 또한 예외는 아니다. '90년대 이래 암시장의 확대는 기본적으로 계획경제 일반의 문제점과 더불어 공식적인 국가배급제의 약화가 직접적 계기가 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소비경제는 철저하게 계획적인 공급에 의존해 있었던 만큼 기존의 중앙에 의한 일원적인 상품유통체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암시장의 확대는 불가피했다.

북한에서 암시장경제의 형성은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80

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이후 국영 상업망의 기능이 떨어지고 소비품 공급부족 사태가 빚어지면서 농민시장은 서서히 암시장으로 변하기 시작했으며 농민시장에서 거래가 금지된 품목인 식량과 공산품이 공공연히 시장에 나오는가 하면, 공간적으로도 국가가 지정한 농민시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80년대 중반 이후 계획적인 공급체계가 마비되면서 식량과 생필품의 배급사정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

따라서 도시 주민들은 1970년대보다도 더 어려운 내핍생활을 감내해야 했으며,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만 했었다. 그 결과, 도시 주민들의 사적 부업활동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중국의 공업제품과 '8·3 소비품생산운동'의 제품들이 불법적으로 다량 유통되면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암시장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³⁸⁾

1980년대 들어 점차로 국가배급제가 약화됨에 따라 합법적인 가내 부업활동과는 별개로 주민들의 불법적인 생계 보조활동도 점차로 증가했다. 일종의 불법적인 부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경제활동 중 대표적인 것은 공장에서 원자재 부품 등을 절취해 집에서 완제품을 만든 후 인근 농촌지역에서 쌀이나 옥수수 등으로 교환하거나 판매함으로써 생계를 보조하는 경우였다.

38) 정은찬(2004), 195-198쪽.

주로 생필품 생산에 관계된 경공업공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생계 보조적인 불법부업의 증가는 도시 주위에 암시장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더구나 농민시장에 대한 당국의 물리적인 규제가 심한 상황에서 이런 부업활동의 증가는 불가피하게 암시장의 확산을 가져 왔다. 특히 이러한 확산 경향을 가속화시킨 중요한 계기는 1980년대 중반 북·중 접경 지역의 변경무역 개시와 '8·3 인민소비품창조운동' 이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으로 단절되었던 북한과 중국 관계가 1982년 정상화된 이후 북한 당국은 일부 접경지역에서 변경무역을 허용했다. 또 1984년부터는 중국 거주 조선족의 북한 친척방문을 허용했다. 이런 조치의 여파로 1980년대 중반부터 친척방문을 빙자한 조선족의 '보따리장사'가 북한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접경 지역 도시들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80년대 말에는 중국산 생필품의 반입이 크게 증가했으며 대부분 암시장을 통해 유통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국 공업품의 북한 유입과 함께 암시장의 본격적인 형성에 크게 기여한 또 다른 요인은 1984년에 국가적 정책으로 제기된 '8·3 인민소비품창조운동' 이었다. '8·3 인민소비품창조운동'은 생필품 증산 운동으로서 여기에서 생산된 생활 필수품은 각 공장·기업소·협동농장에서 생기는 부산물이나 폐기물을 이용하여 생산되며, 국영 직매장에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

분 불법적으로 암시장에 유출되었다.

8·3 인민소비품은 국가 계획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의 간부나 노동자들이 쉽게 8·3 인민소비품을 불법적으로 처리하거나 관련 자재를 절취할 수 있었다. 8·3 인민소비품창조운동은 일정 부문 불법적인 부업활동을 억제하는데 기여하기는 했지만, 그와 동시에 암시장 확산에도 큰 작용을 했다.

북한 주민들은 누구나 생필품 공급카드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소금·신발·기름·담배·내복·양말 등 다양한 품목들이 적혀 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공식적인 상업유통체계가 마비되면서 된장과 간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영농장 농장원이었던 최○○씨에 따르면, 농장생활을 하면서 신발이 제일 필요했다고 한다. 밭일을 하다 보니 신발이 빨리 닳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영상점에서 신발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암시장에서 신발을 사 신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공식적인 상품유통체계가 마비되면서 비공식 암시장이 확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북한의 암시장경제는 이미 1970년대 말~1980년대 초부터 싹트기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 식량 및 생필품 배급 사정이 악화되면서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90년대 중반 최대

의 경제위기, 즉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암시장으로서 실체를 드러냈고, 그 후 더욱 활성화되어 암시장경제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³⁹⁾

깊이보기 ⑦ : 고난의 행군

김일성이 중국 동북의 몽강현 남패자로에서 장백현까지 보름이면 올 수 있는 길을 일제 군경의 포위와 혹심한 식량난,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 등 헤아릴 수 없는 지독한 난관을 물리치고 100일 동안 행군했다는 것을 묘사한 말이다.

북한이 1990년대의 경제난을 ‘고난의 행군’ 시기로 표현한 것은 1995년 초부터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5년 1월 초 당 부부장 이상의 간부를 소집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고난의 행군’에 대해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나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이것은 항일혁명의 투쟁이 더욱 혹독했던 시기에 수령님의 지도 아래에서 조선혁명의 명맥을 끝까지 지켜나간 숭고한 혁명정신인 것이다. 간부 동무들도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2000년 가을에야 고난의 행군이 끝났다고 공식 발표했다.

39) 정은찬(2004), 198쪽

나. 암시장의 실상

북한에서 농민시장과 암시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시장관계가 형성되는 장소는 농민시장이었기 때문에, 농민시장은 허용되지 않은 물품들이 불법으로 유통되기도 하는 암시장 역할도 했다. 북한에서 이러한 의미의 암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부터이고, 80년대 후반부터 더욱 확산되었다.

농민들이 부업으로 생산한 물품을 거래하는 장소인 농민시장에서는 주로 개인 텃밭에서 생산된 팔·깨·콩과 같은 농산물과 닭계란과 같은 축산물이 거래된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신발·비누 등 각종 생활필수품 등의 공급이 어렵게 되자, 불법 암거래가 크게 성행하게 되었다.

암시장 시세는 지역이나 품목에 따라 어느 정도 격차가 존재할 수 밖에 없지만, 국정가격보다 수 십에서 수 백배까지 호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암시장가격과 국정가격간의 엄청난 격차에도 불구하고, 암거래 장소로서 농민시장은 북한 전역에서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암시장으로 상품이 유입되는 원천으로는 텃밭이나 개인 폐기밭 등에서 생산된 사적 경작물, 각종 가내부업의 생산물, 각 공장·기업소·농장 등 소속 직장에서 절취한 완제품이나 원료 등의

각종 물자, 지방별 특산물, 권력층이 국영·외화상점에서 헐값에 사서 유입한 물건, 그리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중국 등 외부로부터 유입된 물품들이었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북한 GNP의 15% 정도가 암시장을 통해 운영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농민들의 경우 생필품의 90% 이상을 암시장에서 조달했으며, 도시거주 노동자들의 경우 식량을 공식 배급으로는 50~60% 정도를 충당할 뿐, 나머지 40%~50%는 암시장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⁴⁰⁾

40) 동용승, “암시장 확산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삼성경제』 (1997. 5)에서 재인용, 441쪽.

4 [종합시장]

가. 종합시장의 도입

북한은 '7·1 조치'를 실시하면서 기존 농민시장을 강력하게 통제했다. 7월 이후 물리력을 동원하여 장마당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장마당의 개인장사 종사자는 모두 국영상점에 물건을 이관하도록 하고 개인장사를 금했다. 말하자면 '7·1 조치'는 장마당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국영상업망을 정상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7·1 조치'로 공장과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은 높아 졌지만 에너지난·원자재난 등 취약한 경제적 여건 때문에 생산의 정상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공장가동률이

20~30%에 불과한 상황에서, 일거리가 없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직장을 이탈해 장사에 나서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났으며, 국영상점은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여 인상된 국정가격으로 판매할 만큼 충분한 식량과 생필품을 확보할 수 없었다. 오히려 쌀과 공산품 등은 더욱 은밀한 형태로 거래되고 주민들의 생활은 폭등하는 물가 때문에 더욱 어려워졌다.

결국 북한 당국은 '7·1 조치'와 함께 시작됐던 장마당에 대한 통제를 완화시켰다. 2002년 9월경부터 장마당에서의 쌀 판매가 가능해졌으며 12월경부터 공산품 거래와 일반 주민들의 사적인 장사행위가 전면 허용되었다. 북한 당국은 2003년 3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기존의 농민시장을 상설시장 형태인 '종합시장'으로 확대 발전시켰다. 2003년 4월 1일자 「조선신보」와 6월 10일자 「조선중앙



▲ 종합시장 전경

통신」은 “중래의 농민시장을 공업제품의 거래를 허용하는 등 시장 기능을 확대한 종합시장으로 개편하였다”라고 보도하였다. 2003년 「내각결정 제27호」는 시장의 폐장 시간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나. 시장의 운영과 기능

종합시장에서는 국가가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상품 및 생산수단 그리고 군수품을 제외한 식량·생필품 그리고 공산품들이 주로 거래되며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품도 거래가 가능했다. 이전과 달리 시장에서는 농민이나 일반 주민들뿐만 아니라 기업소·협동농장도 시장활동에 참여,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각지에 개설된 종합시장은 하나의 단위조직 차원에서 ‘국영기업소’로 체계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각 시·군 행정단위들이 주관해서 상설종합시장을 개설·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종합시장의 매대는 개인 및 기관·단체들이 임대하여 장사를 할 수 있었으며, 대신 그들은 자릿세 역할을 하는 ‘시장사용료’와 일종의 소득세 개념인 ‘국가납부금’을 납부해야만 했다. 평양 통일거리 시장의 경우 판매매대의 약 5%를 공장·기업소의 몫으로 배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계획 초과달성 유도를 위해 공장·기업소는 기본제품의 부산물로 생산된 생필품의 30% 한도내에서 시장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국영상점을 통한 상품은 국정가격에 공급되는데 비해, 종합시장의 상품은 시장가격에 거래된다. 그러나 물가상승의 폭을 조절하기 위해 시장가격은 전적으로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존하기 보다는 당국이 가격에 대해 일정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쌀, 기름을 비롯한 중요지표 상품의 한도가격을 설정하고, 이들 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10일에 한번씩 검토하여 '적절한 가격'을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한도가격을 넘어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

2004년 9월 7일자 「조선신보」는 2004년 4월부터 평양의 통일시장내에서 '도매반'이 설치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영기업소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정가격 혹은 그 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 판매하고 있다 한다. '도매반' 설치·운영은 공급부족에 따른 인플레이 심화로 시장에서의 '한도가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적·행정적 규제가 아닌 '도매반'과 소매상간의 가격차이 조정을 통해 시장가격 인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IV.결론




IV [결 론]

2002년 7월 북한 당국은 가격결정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통해 부분적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했다. 이어서 2003년 3월에는 기존의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확대·개편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 당국은 시장이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간으로 제대로 기능하도록 나라가 보다 적극적인 관리정책을 실시해 나가자라고 정당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90년대 식량난을 맞으면서 농민시장이 사실상의 암시장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농민시장(암시장)을 통한 개인적 거래, 사적 경제활동도 활발해졌다. 전문적인 장사꾼이 등장하게 되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배급보다는 시장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결국 시장을 양성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초보적이고 단편적인 조치이기는 하지만 시장을 허용하고 확대한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현재의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부정하고 시장경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⁴¹⁾

이제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현실로 받아 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새터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주민들간에 장사를 해서 돈을 벌려는 배금주의와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해 있다고 한다. 이는 이윤추구에 기초한 서구식 합리주의가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도 점점 깊이 자리잡기 시작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시장경제체로의 대규모 경제개혁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아직은 조심스럽다. 북한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점진적이며 느슨한 개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 보고 있다. 어쨌든 북한사회에서는 변화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시장경제적 매커니즘 일부가 주민들의 생활속에 파고 들기 시작한 것은 분명하다.⁴²⁾ 새로운 조치나 개혁의 범위나 속도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북한은 이제 시장지향적 개혁이라는 큰 물줄기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41) 오마이뉴스(2003.6.21).

42) 남성욱(2006).

참고문헌

- 남성욱·문성민, 북한의 시장경제부문 추정에 관한 연구: 1998년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3권 1호 (2000),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도; 중요도 더해 가는 북·중 변경무역, 「북한뉴스레터」 (1999. 8).
- 동용승, 암시장 확산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삼성경제」 (1997. 5).
- 박명서, 통일시대의 북한학 강의 (돌베개, 1999).
-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9).
- 심의섭, 「평화시대의 금강산 관광과 북한경제」 (평화연대 평화연구소 2006).
- 이찬도, 북한·중국간의 변경무역 현황과 전망, 「인문사회과학논문집」 4권 제1호 (2000).
- 정세진, 북한의 경제체제 변화와 점진적 시장화 가능성, 「21세기 정치학회보」 제9집 2호 (2005).
- 정은찬, 북한의 암시장경제, 「경제경영연구」 제2집 제3호 (2004).
- 정창현, 「변화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선인, 2005).
- 최봉대·구갑우, 북한 도시 '농민시장' 형성 고정의 이행론적 함의: 1950~1980년대 신의주, 청진, 혜산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6권 2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3).
- 최수영, 7·1 조치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 「북한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개원기념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5. 4. 7).

참고문헌

황덕남, 북한·연변 변경무역의 활성화에 관하여, 「북·중 국경무역 활성화와 나진·선봉지역 인프라 확충 방안」 평화문제연구소 2000년도 한·중 학술회의 논문(2000. 8. 22).

통일부, 「북한농민시장 실태와 가격동향」(통일부, 1999).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2006).

「동아일보」, 조선족 ‘친척돕기’ 방북 행렬, 최근 90여 만명 북한 찾아 (1997. 5. 27)기업 자율성 제고시장화 가속도 (2005. 1. 16).

「오마이뉴스」, 북한에도 종합시장이 열린다(2003. 6. 21).

「조선일보」, 북 화교, 중국식 시장경제 전도사 (2001. 5. 26) ‘남는 것 없다’ 거래 끊겨 (2001. 7. 2).

「조선신보」(인터넷판), 2003년 4월 1일, 2003년 9월 7일, 2003년 12월 22일자.

「조선중앙통신」, 2003년 6월 9일자.

「흑룡강신문」 2004년 1월 20일자.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시리즈

01. 대북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2003.12)
02. 대북지원, 새롭게 보자(2004.8)
03. 먹거리를 통해 본 북한 현실 (2005.2)
04. 한반도 평화정착과 유럽연합의 교훈 (2005.3)
05. 21C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2005.7)
06. 남북관계발전의 법적 이해 (2005.6)
07. 남북한의 역사인식 비교 (2005.9)
08. 남북한 예술 어떻게 변화였나? (2005.9)
09. 남북한 IT용어 비교 (2005.9)
10.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변화 (2006. 3)
11. 북한법을 보는 방법 (2006. 4)
12. 정보화시대, 북한의 정보화 수준 (2006. 9)
13. 북한 과학기술의 이해 (2006. 12)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14

북·중 변경무역과 북한의 시장 실태

- 인 쇄 2006년 12월 30일
- 발 행 2006년 12월 31일
- 발 행 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팀
142-715,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02-901-7160~7 팩스 02-901-7088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uniedu.go.kr

• 디자인/인쇄 양동문화사 전화 02-2272-1767

〈비매품〉



.....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국가들은 체제전환 초기에 시장경제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였다.

중국의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과 사회주의 시장경제론,
베트남의 도이모이(Doi Moi) 정책 등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